

# 경기 끝내 줄 킬러가 없다...FA시장서 에이스 영입해야

## 광주 시퍼퍼스 V리그 결산

### <하> 전력 보강만이 답이다

광주 시퍼퍼스는 시즌 중반 국가대표 리베로 오지영을 영입해 수비라인을 강화했다. 오지영은 디그 부문 5위(세트당 4.82개)에 올랐을 뿐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도 리시브 효율을 끌어올렸다. 지난 시즌 25.31%에서 34.33%로 상승했다. 팀은 디그에서도 경기당 20.06개로 리그 5위에 랭크돼 있다.

아헨 김(Ahen Kim·37) 신임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순간 포인트를 내는 선수, 어느 포지션에서든 득점하는 선수가 필요하다"면서 "아포짓 스파이커(라이트),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 미들 블로커(센터)가 필요하고 스타팅 멤버 6명뿐 아니라 백업도 있어야 한다"며 선수 보강에 대한 바람을 언급했다.

그는 "페퍼스의 강점은 수비이며 리베로 오지영이 리시브라인을 챙기고 수비를 잘 이끌고 있다"면서도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는 게 단점"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페퍼스가 신·구 조화를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팀과 선수를 동반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기 운영능력이 부족한 단점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 포지션 대부분 타구단과 기량 차 아헨 김 감독 "선수 보강 필요해"

### FA시장 김연경 영입 등 나서야

### 올 첫 도입 아시아쿼터제 활용하고 신·구 조화 통한 포지션 밸런스 중요

특히 코트에서 리더, 감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배들의 플레이를 지도, 조율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시킬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프로 배구계의 한 관계자는 "페퍼스가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김연경(흥국생명) 영입을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면서 "FA(자유계약) 시장에서 에이스를 데려오지 않으면 매년 꼴찌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들 블로커(센터)도 보강해야할 포지션이다. 전문가들은 '올 시즌 페퍼스의 블로킹이 매우 낮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실제 페퍼스는 리그에서 블로킹 부문 7위(세트당 평균 1.65개)로 최하위다. 흥국생명은 6위(2.06개)지만 공격력 등으로 커버하는 반면, 페퍼스는 공격력도 높지 않았다. 하계진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는 바람에 최가은과 서재원이 블로킹 라

인을 구축했지만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약한 블로킹 때문에 상대 공격에 속수 무책 당했다. 블로커라인이 공격을 차단하거나 유효 블로킹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실 감독은 재임시절 "블로커들이 손모양을 만들지 못한다"고 기초적인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도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으로 꼽힌다. 주장 이한비가 급성장했고 박경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7개 구단 중 아웃사이드 포지션이 가장 약하다. 득점 상위 랭킹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없고 주전 이한비(공격 점유율 23.55%)와 박경현(14.15%), 박은서(6.88%)는 객관적으로 기량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상 세터 이고은, 리베로 오지영을 제외하고는 전포지션이 보강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로배구 해설자와 전문가들은 페퍼스가 올해 FA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해 FA 선수 20여명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대어 김연경(흥국생명)을 비롯해 배유나·박정아(한국도로공사), 김수지·김희진(IBK기업은행) 등이 FA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페퍼스에서는 이한비와 지민경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아시아쿼터제에 따라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도 예정돼 있어 페퍼에게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다. 현재 구단당 1명씩 뽑는



아헨김(오른쪽) 시퍼퍼스 감독이 장매튜 구단주와 지난 5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페퍼스와 현대건설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KOVO 제공>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는 유지하되, 별도로 아시아 국가선수를 영입하는 제도도. 4월 21일로 예정된 드래프트에는 일본, 필리핀, 대만, 홍콩 등지에서 24명이 참가한다.

이정철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어느 팀이든지 100% 완벽하게 팀을 구성할 수는 없다. 우선 팀이

다음 시즌 목표 성적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수를 스카우트할 필요가 있다"면서 "배구는 젊다고만 되는 운동이 아니다. 신·구 조화를 이뤄 포지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페퍼스의 경우 FA시장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육감배 학생검도대회 성공 개최 다짐 제22회 광주시교육감배 학생검도대회가 지난 25일 광주 서석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검도회 관계자 등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검도회 제공>



2023 중국난징월드컵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대한민국 여자 에페 대표팀. 최인정(계룡시청·왼쪽부터)·송세라(부산시청)·이혜인(강원도청)·유단우(전남도청). <전남도체육회 제공>



## 브레이킹 최강자는? 1차대회 4월 1일 개막

### 국가대표 추가 선발전 겸해

국내 브레이킹 최강자를 가리는 2023 브레이킹 K 시리즈 1차 대회가 다음 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KFD)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브레이킹 국가대표 추가 선발전의 첫 번째 무대다.

KFD는 지난해 11월 2022 브레이킹K 파이널 대회에서 올 시즌 각종 국제대회에 파견할 남녀 국가대표 2명씩을 선발했는데, 세계댄스스포츠연맹(WDSF)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 쿼터가 남녀 각 3장으로 정해지면서 1명씩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FD는 2023 브레이킹K 시리즈 1, 2차 대회를 통해 남녀 국가대표 각 1명을 추가로 선

발한다.

이번 1차 대회에서 상위 16위에 오른 선수들에게 2차 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1차 대회에서 상위 4위 안에 들면 2차 대회 8강 경기 시드 배정을 받는 혜택을 받는다. 이후 4월 말 개최되는 2차 대회의 남녀 우승자가 태극마크를 달게 된다.

향후 아시아연맹은 물론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다수의 국제 대회가 올해 열리는 만큼, 국가대표 타이틀을 놓고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인 비보이 김종호(LEON), 비걸 김예리(YELL)를 비롯해 비보이 김홍열(Hong10), 김호근(Physics)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다. 일반부 외에 1차 대회에선 유망주들이 실력을 겨룰 초·중·고 솔로 부문 경기도 진행된다. /연합뉴스

## 전남도 직장운동경기부 맹활약 국내외 대회에서 존재감 내뿜어

펜싱 유단우 월드컵 은메달  
우유 김민수 국대 선발전 1위  
스쿼시 양연수 전국선수권 우승

ke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8강에서 신희성(충남체육회)에 2-0으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한 김민수는 배진범(서울시 설공단)을 2-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조상현(경남체육회)이 부상기권을 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 생애 첫 태극마크를 차지했다.

김민수 외에도 장민규(29)가 태극권전능에서 19.37점, 김영준(28)이 남권전능 27.34점을 획득하며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도청 스쿼시 양연수(32)는 지난 23-26일 김천스쿼시장에서 열린 제19회 대한체육회 장배 전국 스쿼시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국내외 대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남도청 펜싱팀 유단우가 최근 2023 중국 난징월드컵대회에서 최인정(계룡시청),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과 함께 여자 에페 대표팀으로 출전 2위에 올랐다.

우유팀 김민수(25)는 제35회 회장배 전국 우수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 산타-60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스즈메의 문단속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즈메의 문단속, 나의 연인에게
- 2관 단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 3관 웅남이
- 4관 스즈메의 문단속
- 5관 단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 6관 스즈메의 문단속
- 7관 단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오로라는 남자, 블루 서열, 같은 하늘을 보고 싶어
- 8관 씨네커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국악이 있다 전통이 있다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용곡서트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415-5502 / 062-522-8716